

지난 2015년 12월 제 21대 조선대병원장으로 취임한 이상홍 원장은 지역 거점 대학병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올해로 개원 46주년을 맞은 조선대병원은 암환자 치료를 위한 진단 시스템 도입, 전국 최초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치매전문병동 개소 등의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오는 12월 퇴임을 앞둔 이 원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진행중인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이상홍 조선대병원장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겠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됐다.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달라.”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은 전염성과 치명률이 높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적극적 대응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질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중앙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유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 준비 중인 사업이다.

신종감염병 질환의 국내 유입에 따른 확산위험은 더욱 빈번해 지고 있으며, 현재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환자 격리로 전파를 차단하는 유일한 대응방안으로 일시적으로 대량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기본으로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대규모 감염환자 발생 시 의료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상황별 맞춤형 매뉴얼 구성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는 한 마디로 정의하면 암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단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왓슨은 환자와 관련된 입력 정보를 입력하고, 간단한 옵션을 지정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 암센터인, 뉴욕의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MSKCC)에서 축적한 임상 근거와 최신 논문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방법과 환자 관리 권고안을 제시해준다.

왓슨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이 더 신뢰성이 있는가, 현재의 의료진이 더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흥미 위주의 이슈가 많다. 하지만 왓슨은 인간 의사가 진단함에 있어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조언자’의 역할이다.

이러한 조언자의 역할이 정보의 홍수에서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최신 의료 치료법이 있는지, 환자와 유사한 질병군의 치료 중 가장 최적의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와 관련된 다학제 진료팀에서 다시 한번 협의의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진료 방법이 결



이상홍 조선대병원장이 취임후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진행중인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서울로 가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역 환자들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완공을 마친 외래진료센터는 환자와 보호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하1층은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지상 3-4층은 음압치료 병상을 갖춘 내·외과 병동 및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을 운영해 환자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추진 방향과 성과는.”

▲조선대학교병원은 전문화된 최상의 진료로 환자중심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2009년부터 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에 등록됐고 이에 광주시 의료관광지원센터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선도하고 있다. 2014년부터 1년에 2회 해외의료봉사를 실천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병원 및 협력기관들과의

우를 위한 키즈오페라, 장애인의료봉사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위한 먼저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미래의 우리나라를 책임질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고, 조대부속고 등 지역 중·고등학생 및 대학입학준비생 진로체험학습 견학을 통해 의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료직종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21일 치매 예방 교육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광주시 치매센터를 비롯해 조선대학교의 치매국책 연구단,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 기기 사업등을 한데 묶어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앞장 설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급급지원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등 다양한 의료 지원 활동과 더불어 향후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신종 감염 질환 등 미래 발생 가능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제감염병 진료센터 2021년 개원 ‘인공지능 암센터’ 설립 운영 눈 앞

담당하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만큼 298억의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36개 음압치료병상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과 국제감염병 진료센터, 감염병 전문 연구실, 감염호흡기병동 등 다양한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준비해 오는 2021년 운영 예정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2015년 광주U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경험을 토대로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처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가 호남 지역 최초로 도입돼 오는 9월부터 진료에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무엇이며 도입 배경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IBM 왓슨 포 온콜로지(이하 왓슨)

정된다.

이를 통해 의학 근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의사에게 정확한 치료법을 권고해주는 ‘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으로 의사와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환자 풀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조선대병원이 의료취약지와 외국인 근로자 봉사, 이른둥이 홀커밍데이 행사 등 지역 사회 공헌활동이 눈에 띈다. 그 외 어떤 것들이 있고 추진 배경은.”

▲조선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의 대학병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환원하고자 2014년도부터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의료 및 재능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악한 보건,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외 지역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긴급히 수술이 필요한 해외 및 국내 환자를 발굴, 치료해줌으로써 나눔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케냐 의료봉사는 물론 정기적으로 몽골과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올해 캄보디아 환자 2명을 초청해 안과,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력지원센터와 MOU를 맺어 연 1회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들에게 통역서비스 연결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가게 바자회 물품 기증, 희귀난치성 치료비 전달, 소외계층 쌀 전달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른둥이 홀커밍데이’라는 프로그램 통해 이른둥이 가족들을 초대해 치료 당시 및 퇴원 후 양육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조선대

학교병원은 언제나 지역민 옆에서 든든한 소나무 같은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KTX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면서 의료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대한 진료 차별화 등 대응 방안과 조선대 병원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KTX를 통해 수도권과의 시간적 거리적 공간은 좁혀져 1일 생활권이 됨에 따라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메리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대병원은 센터 중심의 특성화 방안으로 그 해결책을 연구해왔다. 특히 최근에 심혈관 교수 4명을 영입, 총 9명의 교수로 24시간 운영되는 심혈관센터, 뇌졸중센터, 당뇨센터, 척추센터 등 14개 센터를 마련하여 전문 진료과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암센터’ 설립을 통해

MOU 체결로 정보교류, 의료진연수를 통해 홍보 및 외국인 환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SNS를 활용해 조선대학교병원의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최적화된 외국인 진료 시스템을 홍보함으로써 몽골 및 타국 환자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12년 1624명에서 지난해 3,02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취임이후 성과와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앞으로 추진할 목표는.”

▲지역민의 사랑으로 개원 46년을 맞이한 조선대학교병원은 그동안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로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소외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중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협과 함께하는 농어촌 의료봉사, 광주교도소 의료봉사, 소아 환

▲지역민의 건강을 생각하며 46년이란 오랜 시간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병원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 광주시 등 지역단체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단계 발전한 의료서비스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지역민의 격려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길용현 기자

암환자 전문 치료 지원시스템 구축 의료봉사 지역민에 나눔·희망 전달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닌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간, 셀레늄(Se)
- 두뇌 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주 문 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정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co.kr

● 서울 경기 | 동부영양소 (02)930-4007 | 북부영양소 (02)930-3300 | 남부영양소 (02)930-3335 | 양양영양소 (02)930-4999 | 서부영양소 (02)930-2325 | 안양영양소 (02)930-4008 | 광주영양소 (02)930-4801

● 충청영양소 (042)930-9801 | 전북영양소 (053)930-3229 | 전남영양소 (053)930-3301 | 경북영양소 (053)930-3441 | 경남영양소 (053)930-4821 | 강원영양소 (053)930-4521 | 부산영양소 (051)930-4521